

■ 영화



Tenet

- 감독: 크리스토퍼 놀란
- 출연: 존 데이비드 워싱턴 (주도자 역), 로버트 패틴슨 (닐 역), 엘리자베스 데비키 (캐트 역), 마이클 케인 (크로스비 역), 케네스 브래너 (사토르 역), 클레멘스 포시 (바바라 역), 히메쉬 파텔 (마히르 역), 마틴 도노반 (페이 역), 애런 존슨 (아이브스 역), 유리 콜로콜니코브 (볼코프 역), 딘플 카파디아 (프리아 역)
- 러닝타임: 150분 ● 등급: PG-13
- 개봉일: 2020년 9월 3일 ● 장르: 액션, SF

[줄거리]

시간의 흐름을 뒤집는 인버전을 통해 현재와 미래를 오가며 세상을 파괴하려는 사토르(케네스 브래너)를 막기 위해 투입된 작전의 주도자(존 데이비드 워싱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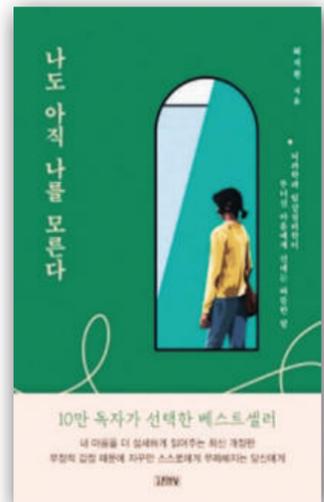
인버전에 대한 정보를 가진 닐(로버트 패틴슨)과 미술 품 감정사이자 사토르에 대한 복수심이 가득한 그의 아내 캐트(엘리자베스 데비키)와 협력해 미래의 공격에 맞서 제3차 세계대전을 막아야 한다!

당신에게 줄 건 한 단어 '테넷'.
“이해하지 말고 느껴라!”



■ 신간

나도 아직 나를 모른다



저자는 과학적 근거 없는 ‘가짜 심리학’과 허황된 자기계발서가 범람하는 현실 속에서, 임상심리학과 뇌과학에 관한 검증된 지식을 더 많은 사람과 나누고자 이 책을 썼다. 말뿐인 위로나 잘못된 처방으로는 과부하 걸린 마음을 치유할 수 없다. 냉철한 위로가 필요하다. 혹사당하는 뇌가 나에게, 요동치는 마음이 나에게 보내는 신호를 제대로 들여다 봐야 한다. ‘뇌과학자의 이야기’와 ‘임상심리학자의 이야기’로 구분해 마음의 문제를 다룬 이유다. (중략) 이 책의 미덕은 자기 자신을 탐구하는 시야를 넓히는 데 큰 도움을 준다는 데 있다. (‘출판사 서평’ 중에서)

■ 허지원 지음 | 김영사 펴냄 | 264쪽



미국 내과 · 스포츠의학과 보드전문의

김진세

내과/통증전문의
스포츠의학과

스포츠 부상 전문 치료병원
근골격계 통증, 신경통증 전문의

P.R.P.(자가혈청) Stem Cell(줄기세포) 치료
USC 의과대학 레지던트 Training 지정병원

한국인 유일의 미국내과 및 통증의학
미국 스포츠 의학 보드전문의



Chin Se Kim M.D.

- ◆ 미국내과보드전문의
- ◆ 미국스포츠의학보드전문의
- ◆ 미국통증의학보드전문의
- ◆ 가주정부 Qualified medical evaluator

전문진료분야

- ▶ 일반 내과질환 : 고혈압, 당뇨병, 심장질환, 폐질환, 응급치료
- ▶ 각종 스포츠 관련 부상 치료 전문
- ▶ 각종 통증치료 : 관절염, 통풍, TMJ, 목, 허리디스크, 견비통, 두통
- ▶ 최신 물리치료 : 침 치료, 교통사고, 직장상해
- ▶ 종합 진단검사 : 초음파, 심전도, ECHO, 폐기능 검사
Treadmill, Holter
- ▶ 가주정부 Disability evaluation 지정병원
- ▶ Sports injuries, 탈골, 골절치료, Cast, Custom brace
- ▶ 수술 후 재활 치료, 중풍 물리치료

최첨단 C-Arm 통증치료, 초음파 MRI, CT촬영, 각종 내과 질환 종합검진, 할인 Program 제공

오바마케어 취급
각종 HMO·PPO/보험/교통사고
직장상해보험/메디케어 취급
여행자 보험/종합 혈액 검사

문의전화 **714-520-0809**

1736 W. Medical Center Drive #B Anaheim, CA 92801

